

# 이우성 “걱정마 황대인...1루는 내가 맡을게”

### ‘허벅지 부상’ 황대인 출혈 심해 검진 어려워...2~4주 뒤 재검 이우성 “준비한 대로 역할 할 것”...KIA, 잠실서 두산과 3연전



부상 악재 속 이우성이 KIA 타이거즈의 ‘조커’가 됐다.

KIA가 부상으로 나성범에 이어 황대인을 잃었다. 황대인은 지난 27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2차전에서 4회 1사에서 1루 베이스를 밟은 뒤 주저앉았다. 왼쪽 허벅지 부위에 통증 증을 호소한 황대인은 앵벌런스를 타고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28일 이범호 감독은 “(부상 부위에) 피가 많이 고여 있다. 2~3주 정도 아이싱을 한 뒤 피가 빠진 뒤 어느 정도 상태인지 체크할 수 있다고 한다”고 황대인의 부상 소식을 전했다.

햄스트링이 손상됐지만 출혈이 심해 MRI 검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검을 통한 정확한 부상 상태를 확인하는 데만 2~3주, 최대 4주가 걸릴 전망이다.

황대인은 호주·오키나와 캠프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시범경기에서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면서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나성범이 우측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던 만큼 황대인의 방망이를 기대했던 KIA는 개막 3경기 만에 또 다른 부상을 만났다.

시즌은 다시 또 이우성에게 쏠린다. 지난 마무리캠프에서부터 1루수 변신을 준비했던 이우성은 나성범의 부상과 황대인의 활약과 맞물려, 우익수 자리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시범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입었던 만큼 우려의 시선은 있었지만 완벽한 컨디션을 보이면서 3경기에서 5개의 안타를 터트리면서 0.417의 타율을 기록, 팀 3연승에 기여했다.

이우성은 황대인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다시 1루로 이동해 역할을 맡게 된다. 초반 마운드 집중 전략에 따라 이우성이 1루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범호 감독은 “우성이 1루로 써야 할 것 같다. 외야는 이창진과 김호영을 돌아가면서 쓰고, 윤영철이 엔트리에 들어올 날 선수 한 명이 빠지게 된다. 다음 주 초까지 투수를 1명 더 써야 할 것 같아서 일단 이 구성으로 간다. 투수 파트에서 선발진

페이스 올라올 때까지 투수 1명을 더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14명으로 가다가, 13명으로 줄일 것이다. 그때 야수를 1명 더 가면서 1루수를 올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우성은 “준비한 대로, 주어진 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연이은 부상으로 공수에서 역할이 더 막중한 이우성은 “팀에 해결사 최형우 선배님 있다(웃음).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 물론 부상 선수가 나와서 너무 아쉽지만 나는 준비한 대로 나가려는 대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준비하려고 한다”며 “지금 운이 좋아서 안타가 나오고 있다. 개인적인 것보다는 팀이 이기는 경기를 하니가 좋다. 그게 행복하다. 이겼을 때 라커룸 들어가는 게 정말 행복하다. 하루가 잘 마무리됐다는 그런 느낌이다. 라커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많이 이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우성은 KIA의 3연승이 기록된 27일에는 4번 최형우에 이어 5번에서 역할을 했다. 최형우가 1회부터 나군안을 상대로 결승 투런포를 날렸고, 이우성도 중전안타로 분위기를 이으면서 박이닝을 만들었다. 그리고 7회에는 2타점 적시타도 때려내면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이우성은 준경하는 선배 뒤에서 팀 승리를 생각하겠다는 각오다.

이우성은 “흥난 나오고 나서 선배님을 보는 데 짜증이 날 정도로 너무 멋있었다. 정말 멋있었다. 나도 선배님 많이 보는데 모든 게 완벽할 선수니까 우리 팀 선수들도 모두 보면서 배울 것 같다”며 “지난해 선배님이 부상 당한 날 바로 병원에 갔었는데 그렇게 아파하는 표정을 처음 봤다. 하지만 겨울에 하시는 것보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42살 아니다, 32살 같다”고 웃었다.

부상 악재 속 KIA는 주말 잠실로 가서 기세 좋은 두산 베이스를 상대한다. 지난 시즌 4승 12패로 열세를 기록하기도 상대이기도 한 만큼 잠실 전적이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시즌 초반 순위 싸움의 키를 쥐게 된 이우성은 ‘팀’만 생각하고 있다.

이우성은 “물론 우리 팀이 두산에 약했지만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하루하루 그날 경기를 이기려고 한다. 이번에도 이기려고만 생각할 것이다.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 팀이 이기는 게 목표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나성범에 이어 황대인이 27일 롯데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했다. 나성범의 부상으로 우익수로 이동했던 이우성이 다시 1루에서 역할을 맡는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올해는 다르다” 타이거즈 영건들, 곰사냥 벌러

### 우천취소로 선발 로테이션 변경...이의리·윤영철 출격

‘호랑이 군단’의 영건들이 두산전 열세 만회를 위해 마운드 전면에 선다.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와 롯데의 시즌 3차전이 비로 취소됐다. 지난 24일 KT와의 개막 두 번째 경기로 비로 치르지 못했던 KIA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게 됐다.

비로 두 경기가 취소되면서 두산전에 맞춰 준비했던 선발진 로테이션도 달라졌다.

28일 선발 등판을 준비했던 이의리가 하루 밀어 29일 두산과의 첫 대결을 책임진다.

이어 23일 개막전에 출격했던 윌 크로우가 윤

영철과 순서를 바꿔 먼저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 두산 3연전의 마지막은 2년 차 윤영철의 장식한다.

대권에 도전하는 KIA에는 주말 3연전이 시범대가 될 전망이다.

KIA는 27일 롯데전에서 최형우의 선제 투런포 등을 앞세워 1회 6점을 만들어낸 뒤 인상적인 KBO리그 데뷔전을 치른 제임스 네일을 필두로 장현식-곽도규-김대유로 마운드를 이으면서 8-2 승리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2015년 4월 1일 이후 3283일 만의

개막 3연승에 성공했다. 같은날 두산도 3연승에 성공하는 등 두 팀은 모두 초반 흐름이 좋다.

특히 두산은 4경기에서 팀 타율 0.317을 찍으면서 가장 뜨거운 방망이를 보여주고 있다. KIA는 불펜진이 3경기에서 자책점을 남기지 않는 등 2.00의 팀 평균자책점을 찍으면서 탄탄한 마운드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창과 방패의 흥미로운 대결. KIA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4승 12패라는 절대적인 열세를 만회해야 하는 3연전이기도 하다.

시즌 첫 등판에 나서는 이의리와 윤영철이 두산의 뜨거운 방망이를 잠재우고 승리를 신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A매치 휴식 끝 광주FC “축구도 홈 3연승”

### K리그1 4R 31일 대구FC 상대



A매치 휴식을 보낸 광주FC가 홈 3연승을 위해 스파이크콘을 다시 조여낸다.

광주가 31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구FC를 상대로 K리그1 2024 4라운드 경기에 나선다.

광주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안방에서 승점 사냥을 재개한다.

‘우승후보’ FC서울과의 개막전을 2-0 승리로 장식했던 광주는 이어진 강원FC와의 2라운드 경기에서도 전반 1분 만에 실점을 하고도 4-2 역전극을 연출하면서 연승을 달렸다.

이어 ‘전적’ 포항스틸러스 안방에서 3연승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아쉬운 실패였다. 포항의 빠르고 강한 압박에 막혀 위협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했고, 후반 추가 시간에 정재희에게 골을 내주면서 0-1패를 기록했다.

올 시즌 홈에서 열린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신고한 광주는 분위기를 살려 ‘대구 홈경기 징크스’ 탈출에 나선다.

광주는 지난 2017년 3월 이후 홈에서 진행된 대구와의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 6차례 맞대결에서 1무 5패의 열세를 보였다. 통산 전적은 7승 4무 7패로 팽팽하게 맞서었지만, 광주 대구 모두 안방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는 징크스를 깨고 홈 3연승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A매치 휴식이 동안 경험과 자신감을 쌓고 돌아온 선수들이 있다.

‘중원의 사령관’ 정호연은 지난 26일 태국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원정 4차전을 통해 국가대표 데뷔전



A매치 휴식을 보낸 광주FC가 31일 홈에서 대구FC를 상대로 K리그1 4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시즌은 지난 10일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는 최경록(가운데)과 가브리엘(오른쪽)의 모습. <광주FC 제공>

을 치렀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정호연은 태극마크까지 달면서 팀은 물론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발돋움했다.

U-23 대표팀에서 우승컵을 들고 온 엄지성의 발끝도 매섭다.

엄지성은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십에 참가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준결승전에서 1-0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을 장식했다. 엄지성의 골을 앞세워 결승전에 오른 한국은 호주와 결승에서 맞붙어 승부차기 끝에 4-3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엄지성과 함께 변진수도 대표팀으로 호흡을 맞췄고, 올 시즌 새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포포비치는 적으로 만나 우승을 다뤘다.

실전에서 짜릿한 골맛을 본 엄지성은 그 기세를 몰아 리그에서 시즌 마수결이 골에 도전한다.

앞선 포항전에서 상대의 집중 마크에 고전했던 가브리엘은 동료들을 활용한 연계 플레이로 ‘무등

산 호랑이’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대구에 광주 원정에서의 좋은 기억을 살려 시즌 첫승을 노린다.

세징야-에드가-고재현으로 이어지는 ‘삼각 편대’가 광주 골문을 노리고 있다. 후방을 책임지는 요시노와 흥철도 좋은 컨디션으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상대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밀집 수비에 상승세가 꺾인 광주는 A매치 휴식이 동안 남해에서 합숙 훈련을 하면 돌파구 찾기에 주력했다.

‘우승’을 목표로 내세운 시즌인 만큼 광주는 초반부터 확실하게 승점을 쌓아갈 계획이다. 31일 대구전을 시작으로 4월 3일 인천(홈경기), 4월 6일 김천(원정경기)까지 3연전 일정이 이어지는 만큼 대구전이 중요하다.

역습에 강한 팀들과의 대결을 앞둔 광주가 포항전 패배를 ‘예방주사’로 삼아 새로운 전략으로 홈 3연승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양루니’ 이종호 고향서 고별전

### 31일 광양서 K리그2 전남-천안시티FC전

‘광양루니’ 이종호가 광양에서 그라운드와 작별을 고한다.

전남드래곤즈가 31일 오후 2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K리그2 2024 4라운드 천안시티FC와의 홈경기에서 이종호 은퇴식을 연다.

이날 전남은 이종호를 초청해 팬 사인회와 은퇴식을 진행한다.

이종호는 전남유스팀인 광양제철중-고를 거쳐 2011년 전남 유니폼을 입고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전남에서 2015시즌까지 활약했던 그는 2016년 전북현대에 이어 2017-2018년 울산현대에서 뛰었다. 2020년 친정으로 돌아온 그는 2021시즌에는 주장 완장을 차고 전남 선수단 전면에 서기도 했다. 이해 전남은 2부리그 구단 사상 첫 FA컵(현 코리아컵)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2022-2023시즌에는 성남FC에서 뛰던 그는 프로통산 296경기에 나와 68득점, 26도움을 기록했다.

전남 소속으로는 195경기를 뛰며 48득점, 15도움을 장식했다. 이는 구단 역대 경기 출전기록 5위, 득점 2위, 도움 5위 기록이다.

그는 저돌적인 플레이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광양루니’라는 애칭을 얻었다.

고향에서 팬들에게 선수로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된 이종호는 “전남에 입단해 첫 5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2012년에 하석주 감독님, 노상래 코치님이 부임하면서 축구에 눈을 떴고,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이룰 수 있었다”며 “오랜만에 전남에서 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31일 많은 팬분들을 뵈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전남을 위해 항상 응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 관계자는 “이종호 선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고, 선수로서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이종호 선수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